

소설로 내민는 ‘5·18광주정신’ 세계화 발판

CULTURE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정찬주 오월 다룬 ‘광주아리랑’ 전 2권 영역본 출간

2020년 민중항쟁 40주년 기념 출간 외연 확장 계기

국립5·18민주묘지 제단에 신고···본격 진출 도모를

전남 화순 쌍봉사 건너 산자락 오르막길을 조금 오르다 보면 ‘이불재’라는 창작공간이 나온다.

이곳이 국내 불교문학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전남 보성 출생 소설가 정찬주씨가 머물며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산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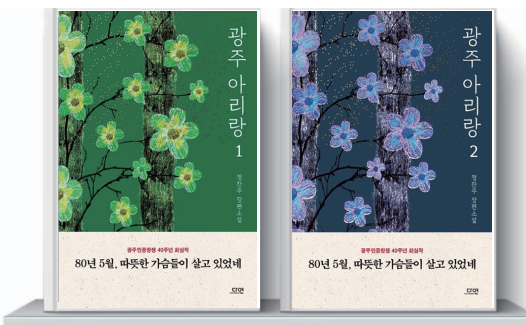
광주민중항쟁 40주년 때 발간돼 ‘5월문학의 원본’이라고까지 평가를 받았던 그의 ‘광주아리랑’ (다연 판, 전 2권) 영역본이 최근 발간됐다.

이번 영역본은 최용배씨 (가천대 겸임교수)와 양항자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상임대표가 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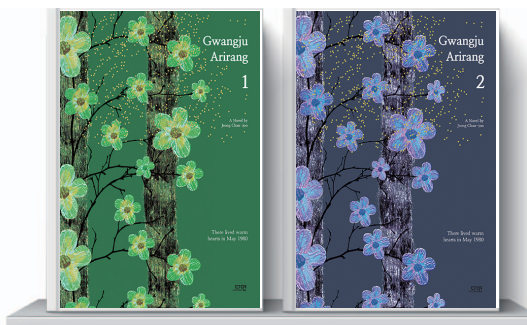
으로 작업하면서 가능해져 출간으로까지 이어졌다. 작가와 영어 공동번역자 등은 ‘5·18광주정신’을 세계화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출간을 추진했다고 한다.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하는 원 번역자가 있었으나 전라도말에 대한 제대로 된 번역이 미흡해 애초 계약을 깨고 다시 번역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아리랑’이 출간 당시 주목받았던 이면에는 작가가 메타포아를 버리고 실화를 소재로 삼아 진실을 탐구하는 목시록 같은 서술방식을 구사하는 등 논픽션의 다류와 픽션의 소설을 오가는 다류소설 형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2020년 5월 18일에 출간된 한국어판 ‘광주아리랑’



영역본으로 출간된 ‘광주아리랑’

또 영웅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 조명되지 않았던 광주시민들을 중심에 둔 가운데 주방장과 상인, 운전수, 페인트공, 용접공, 가구공, 선반공, 공장 여공, 예비군, 예비군 소대장, 대학교 교직원과 수위, 비운동권 학생, 영업사원, 재수생, 구두닦이, 농사꾼 등을 등장시켰다는 점이다.

이외에 등장인물들을 통해 광주시민이 계엄당국에서 줄곧 주장한 폭도가 아님을 온전히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5·18광주정신’을 장편 대작으로 형상화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작가가 ‘5·18광주정신’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의 권리’, ‘불의에 맞선 저항정신’, ‘나눔과 대동정신’으로 인식하고 있던 시각이 투영돼

있는 만큼 이러한 ‘5·18광주정신’이 광주권에만 머물지 않고, 외연을 확장에 세계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이들은 세계화추진 1단계로 영역본 ‘광주아리랑’을 5·18 기념일 당일 국립5·18민주묘지 제단에 먼저 올려서 고 (告) 한 뒤, 세계 유수한 대학의 인권연구소, 인권지도자, 인권정치인, 인권지식인 등과 더 나아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해외 동포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한편, 세계 명문 출판사와 계약해 본격적으로 진출을 꾀할 방침이다.

‘광주아리랑’은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14일 간을 읊나버스 형식으로 다룬 다류소설로,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그 안에 얹힌 수많은 인물

들은 40년이 지난 오늘날 리얼리티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부활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때리고도 남는다.

현재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광주시민 개개인을 집중적으로 다룬 이 작품은 그들이 계엄당국 측에서 줄곧 몰아간 폭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언해 내고 있다. 그래서 안식을 찾지 못한 채 고달프게 살아가, 그러나 따뜻한 가슴을 가진 민초일 뿐이었다는 점을 새삼 깨닫고 재발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광주는 특별한 도시가 아니라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통의 도시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80년 5월, 광주에는 따뜻한 가슴들이 살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셈이다. 제1, 2권 모두 2020년 5월 18일에 출간돼 의미를 더했다.

정찬주 소설가는 이번 영역본 출간에 대해 “5·18광주민중항쟁이 광주·전남 내지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말고 세계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미있는 작업으로 생각한다”며 “광주정신이 불의에 맞서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자각, 모두가 함께하는 대동정신 등이 핵심 가치로 인류보편적 가치이기도 한 만큼 얼마든지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른 나라에서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동학농민군 투쟁 그린 창극 ‘조선의 눈동자’

청강창극단, 23일 장성문화회관에서

장성 황룡면 월평리 일대 전투 소재

“신분 초월 연대·민주주의 되새겨”

장성 황룡강을 배경으로 동학농민군의 치열했던 투쟁과 찬란한 승리를 그린 창극이 선보인다.

(사) 청강창극단 (대표 박세연)의 창극 ‘조선의 눈동자’가 23일 오후 2시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작품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일대에서 서양식 무기로 무장한 관군에 맞서 승리한 동학 농민군의 찬란한 역사를 바탕으로 시대를 넘어선 용기와 희생, 연대

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청강창극단은 전통 창극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

‘조선의 눈동자’는 ‘장성 동학혁명에 죽어간 영혼들 등장’, ‘황룡촌 전투 만세’, ‘장태를 만드는 장성 동학’, ‘두 주먹 불끈’, ‘철갑선 장태야 나가자’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기획 및 제작은 맹성민, 작가 및 연출은 김영만, 음악감독 김상철, 기획 김소영, 작창 박세연, 이일규가 참여했다.

박세연 역에 박세연, 구니 역에 황인자, 가운 역에 유윤하, 말티맨 역에 손인구, 장성접주 역에 박태빈 등이 출연한다. 장단은 이재일, 대금 은 안창섭이 연주한다.

박세연 대표는 “‘조선의 눈동자’는 성별과 신분을 초월한 연대와 평등, 민주정신을 되새기고 오늘날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역사와 예술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 창극

이 전하는 올림과 전통의 향기를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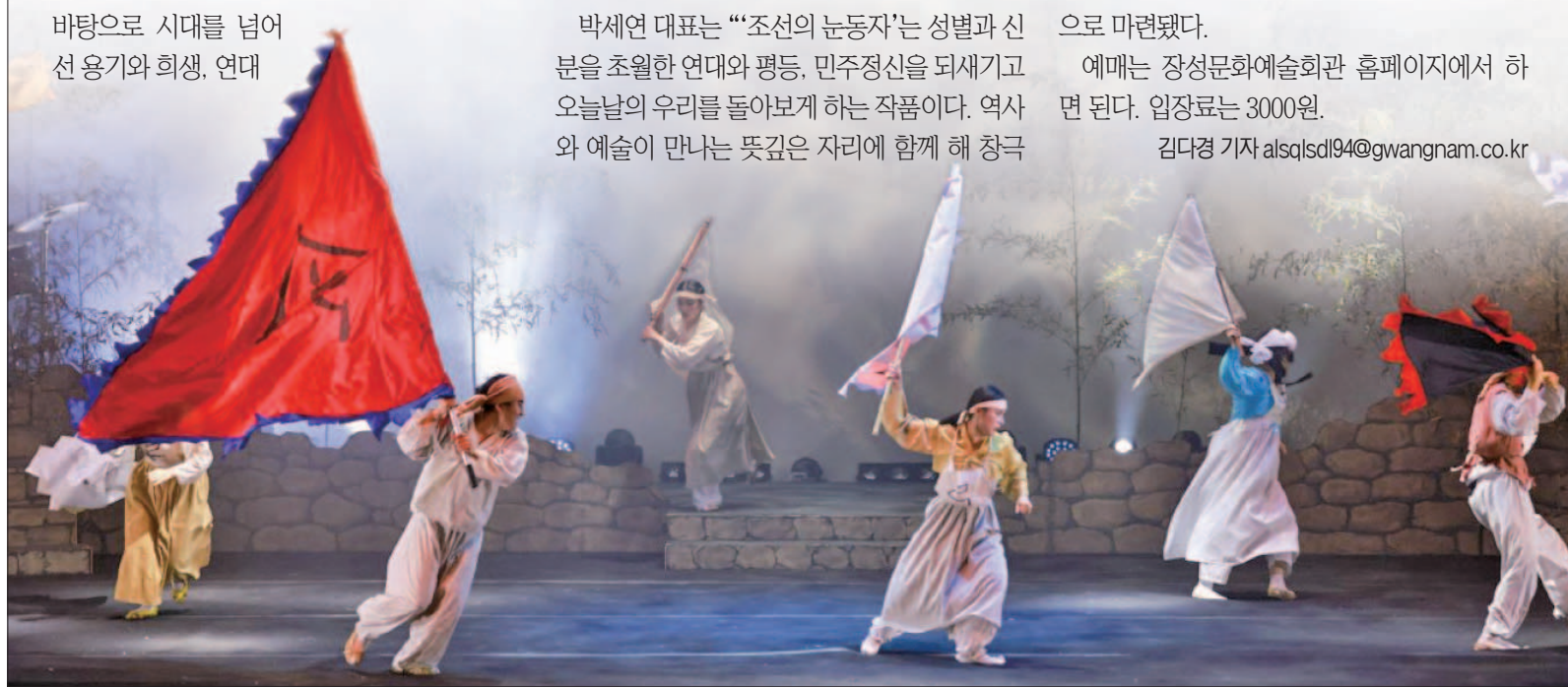
2015년 1월 창단한 청강창극단은 “나로부터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품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우리 음악을 사랑하고 아끼는 최고의 예술가들과 함께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창극 창작 및 공연 등을 통해 우리 소리의 맛과 흥을 알리는데 애비지했다.

주요 공연으로는 2019년 창작극악뮤지컬 ‘꽃가마 타고’, 2020년 가족극 ‘별을 따라’, ‘꽃가마 타고’, 창작소극극 ‘심정 물속을 날다’, 2021년 가족극 ‘일곱색깔 무지개’, 가족극 ‘우리 읍내’, 2022년 K창극 ‘황룡가운’ 등이 있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 공연장 협력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

예매는 장성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입장료는 3000원.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12월 개관

아시아도자문화전시 확대 이전 2층 규모 3개 상설 전시실과 전문 수장고 등 갖춰

국립광주박물관 (관장 최홍선)은 지난 12일 상설전시실인 ‘아시아도자문화관’의 전시를 종료하고 오는 12월 ‘도자문화관’을 새롭게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광주박물관은 2022년 도자문화관 건립공사에 착수, 4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올해 개관한다. 2018년부터 이어온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이라는 핵심 목표에 따라 국내 최초로 도자기를 전문으로 소개하는 브랜딩 문화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자문화관은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1층에는 3개의 상설전시실 (한국도자, 신안해저도자, 디지털 아트존)과 도자기 전문 수장고, 2층에는 카페 등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도자실에서는 강진 고려청자, 광주 충효동 분청서기 등 6만여점에 이르는 한국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광주박물관의 강점을 살려, 도자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12월 ‘도자문화관’을 새롭게 공개한다. 사진은 디지털 아트존.

기의 제작과 유통, 소비의 과정은 물론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를 통해 한국 도자기 천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또 신안해저도자실에서는 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원나라 (元代, 1323년경) 무역선에 실려있었던 2만4000여점의 다양한 도자기를 중심으로 14세기 동아시아 문화교류를 한눈

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디지털 아트존은 폭 60m의 초대형 파노라마 스크린에 펼쳐진 도자기와 광주·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고해상도 영상과 입체적인 사운드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이현 작 ‘cloud 15’



손지원 작 ‘숨겨진 순간들’

‘회화’ 매체로 다양한 형태의 풍경 구축

‘회화가 무엇인가?’ 주제 3인전

김은택·손지원·이현 작가 등

18일까지 광주 갤러리 헤움서

광주를 연고로 활동 중인 김은택, 손지원, 이현 작가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3인전이 지난 9일 개막, 오는 18일까지 광주 갤러리 헤움에서 열린다.

‘회화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모두 회화라는 매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풍경을 표현해낸 이들 작가의 회화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이들 작가는 재현의 표면을 밀어내고 그 아래 숨겨진 감각의 층위를 파고드는 특성을 조망하는 한편, 감각과 물질, 신체가 교차하는 복잡한 지점에서 사건으로 태어나는 회화의 여정을 탐색한다.

김은택 작가는 빛이 장면을 드러내는 방식과 그것이 회화라는 사건에 개입했을 때 물질이 감각과 조응하는 방식을 탐색한다. 그는 사진 자료를 참고하지만 이를 그대로 옮기는 것 대신 투명하고 반투명한 재료들을 화면에 중첩시키며 축적되는 시간

의 흐름과 감각적 밀도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또 손지원 작가는 어떤 장면의 재현보다 자신을 스쳐간 일상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꿈틀대는 감각의 층위를 발견해나가는 일에 가깝다.

그는 뚜렷한 서사를 겨냥하기보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찰나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들을 더듬으며 축적되는 붓질에 자신의 감각을 담는다.

마지막으로 이현 작가는 작품 앞에 서면 표면 위로 선명하게 드러난 붓의 자국이 그리 해운 경로를 지시한다. 작품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빠르게 휘갈기고 거칠게 긁어낸 흔적들이 엿보인다.

작가는 변화하고 유동하는 자연의 상태를 붓의 궤적과 물감의 축적을 통해 자신의 감각을 충실하게 추적한다.

기획자로 동참한 양다솔씨는 세 작가의 회화에 대해 “재현을 출발점으로 삼아 감각의 층위를 조망해 나가는 수행의 흔적이다. 그들은 장면을 붙잡기보다 밀어내고 그 자리에 휘두른 붓의 경로, 색의 밀도, 재료의 질감을 통해 감각을 쌓는다”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화면은 하나의 이미지라기보다 시간의 흐름과 감각의 축적이 남긴 흔적에 가깝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야당’, ‘미키 17’ 제치고 올해 최고 흥행작 등극

누적 관객수 301만여명 집계

황병국 감독의 범죄 영화 ‘야당’이 봉준호 감독의 할리우드 영화 ‘미키 17’을 제치고 올해 개봉한 영화 중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

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는 ‘야당’의 누적 관객 수가 301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작품인 ‘미키 17’의 최종 관객 수 (301만3000여명)를 넘어선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개봉한 ‘야당’은 총 25일 동안 일간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며 흥행을 이어갔다. ‘마인크래프트 무비’, ‘썬더볼츠’,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파괴’ 등 경쟁작들의 도전을 막아냈다. 전날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한국 영화로



황병국 감독의 범죄 영화 ‘야당’ 스틸컷.

는 ‘악인전’ (2019) 이후 6년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야당’은 마약 범죄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고 이익을 챙기는 브로커인 야당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야당 이강수 (강하늘 분)와 그와 공생하는 검사 구관희 (유해진), 마약 밀매 조직 소탕에 모든 것을 건 형사 오상재의 이야기를 그렸다. 연합뉴스